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Family Resources on Caregiving Stress for Dementia Elderly in Homemakers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장윤옥
강사 정서린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Professor : Jang, Yoon Ok

Lecturer : Jeong, Seo Lee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s of family resources, i.e. objective resources,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on caregiving stress for dementia elderly in homemak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1 married women who had cared for dementia elderly. The survey method was a questionnaire.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Cronbach's ,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Homemakers' caregiving str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ir academic background and monthly income, but negatively correlated to perceived adequacy of human resources, perceived adequacy of material resource, psychical support resource from relatives,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Second, caregiving stress of homemakers was affected by family cohesion, monthly income, psychical support resource from relatives, perceived adequacy of human resources,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Corresponding Author: Yoon-Ok Ja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 Dong, Buk-Gu, Daegu, 702-701, Korea Tel:82-53-950-5928 Fax:82-53-950-5924 E-mail: yojang@knu.ac.kr

주제어(Key Words): 치매노인(dementia elderly), 가정자원(family resources), 가정자원적정도지각(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부양스트레스(caregiving stress)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치매는 질병의 진행과 더불어 환자가 인지적·행동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다른 만성질환과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것보다 더 어렵고 부담이 된다(Light, Niederehe & Lebowitz, 1994). 더구나 치매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를 보살피는 전문적인 시설이나 이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가 여전히 미흡하여 노부모 부양자가 자신의 가정생활 여건이 치매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합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부양책임을 져야하고 가정내에서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주부가 주부양자의 책임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권중돈, 1994) 치매를 정상적인 노화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 때문에 주부들이 치매노인의 부양책임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가사노동과 가정관리의 책임도 동시에 맡고 있어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그 어떤 가족구성원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스트레스원은 같아도 이로 인해 지각되는 부양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스트레스 정도는 각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소유·활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가정자원은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장윤옥, 1997; 전세경, 1989; 최연실, 1996)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가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정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부양자에게 의존하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면서, 동시에 가족구성원들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치매노인 부양자에게는 가정자원이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정자원의 부족은 더욱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치료약의 개발과 새로운 주거보호 시설의 등장과 같은 최근의 변화들은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한 부담을 보다 감소시켜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주거보호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에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상황과 관련된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다(Janzen, 2000)고 하는 것처럼 치매노인부양에 있어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며, 특히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장 우선적인 부양자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Ory, Hoffman, Yee, Tennstedt & Schulz, 1999). 따라서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치매노인 부양자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부양자가 자신의 부양책임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필요한 보살핌은 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구성원의 가정자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자원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Schulz & Quittner, 1998) 하겠다.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노인과의 관계와 동거여부(Fitting, Rabins, Lucas & Eastham, 1986; George & Gwyther, 1986), 확대가족원들의 지지 정도와 유료 서비스의 활용(Pratt, 1987), 월소득(Starrels, Ingersoll-Dayton, Dowler & Neal, 1997)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에

서는 치매노인의 건강상태와 부양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권중돈, 1994; 김윤정, 1994; 마정수, 1995)이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치매노인 부양자의 다양한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김태현, 전길량, 1996) 가정자원이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부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각 가정이 소유한 가정자원의 양과 질, 그리고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가정자원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가정자원을 구성하기(전세경, 1989) 때문에 가정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뿐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 등 가정자원의 다양한 측면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자원을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객관적인 가정자원, 주관적인 가정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그리고 개인의 행동과 성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Hooyman & Kiyak, 1988)인 통제소재, 주부의 사회적지지 자원, 그리고 가족체계자원인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세분하여 이들 각각의 가정자원이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정자원이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들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변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부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정자원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부양에 대한 정보와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을 고안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는 객관적 가정자원(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취업여부),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인적, 물질, 지역사회자원), 사회적 지지자원(경제적지지, 심리적지지), 통제소재(내적, 외적), 그리고 가족체계자원(응집성, 적응성)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가정자원(객관적 가정자원,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사회적 지지자원, 통제소재, 가족체계자원)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정자원

가정자원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거나 그 잠재력을 인정받은 수단으로 모든 문제해결의 필수적인 요소(Deacon & Firebaugh, 1988)이며 특정한 요구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서로 달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자원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Deacon과 Firebaugh(1988)는 인적·물질자원으로, Gross, Crandall & Knoll(1980)은 인적·비인적, 경제적·비경제적자원으로, Nickell, Rice & Tucker(1976)는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인적·경제적·환경적자원으로, 그리고 McCubbin, Comeau & Harkin(1983)은 개인적·가족체계·사회적지지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설명하는 데는 McCubbin 등(1983)의 가정자원 분류가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ice & Tucker, 1986). 특히 가족체계자원은 가족조직의 내부자원으로 개인적인 특성들의 조합이나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자원이며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가족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Lavee & Olson, 1991). 그리고 사회적지지자원은 스트레스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막아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Rowland, Dodder & Nicklos(1985), Rommel(1986), 서리나(1994), 최연실(1996) 등은 가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는 객관적인 자원의 양이나 질보다 가정자원에 대한 주부의 주관적인 의식과 지각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이영석과 최외선(1993)은 가정자원을 개인적 자원, 체계내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그리고 개인적 자원을 다시 재정적 안정, 인지적 자원, 건강, 그리고 자기통제력을 의미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분류하고 이들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들 자원에 대한 주부의 만족도를 함께 측정하여 주부의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 중 심리적 자원으로 분류되는 자기통제력은 개인의 성격특성의 하나인 통제소재로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로서 가장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심리적 특성(신은영, 김경연, 1996)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가정자원을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월소득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가정자원, 인적·물적·지역사회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친·인척들로부터 받은 경제적, 심리적 지지를 의미하는 사회적지지자원, 개인의 성격특성이며,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인 통제소재,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포함하는 가족체계자원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2.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부양스트레스란 용어는 고령이거나 질병을 겪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언급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George & Gwyther, 1986) 용어으로써 부양 상황이나 역할, 행동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부양자 개인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영역적인 개념이다.

부양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나 현재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은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서의 개념(권중돈, 1996)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노인에 대한 주요 지지체이면서 동시에 숨겨진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은 암환자를 부양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며(Clipp & George, 1993),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앓기도 한다(Pruchno & Resch, 1989)고 보고되고 있다. Zarit, Reever & Bach-Peterson(1980)은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적 활동, 재정적 상태 등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Mcnaughton(1991)은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비부양자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 했지만 건강이나 면역상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박순미(1999)는 주부양자들이 '노인-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에서 가장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하고, 이은희(1997)는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개인적·사회적 제약 즉 노인의 간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가족관계에 부담을 받고,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방해 받고, 그리고 친구와의 교류를 방해 받는 것을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치매노인 부양이 자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각하지 않을수록, 치매노인과 친밀할수록, 그리고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정서적 보상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양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한다. 유광수(2001)도 치매노인 부양주부들은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점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치매노인을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보고한다. 또한 조명희·권오정·최정신·김대년(2000)은 치매의 정도가 심할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양동기가 자식으로서의 책임 때문인 경우, 며느리인 경우가 심리적인 부양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치매노인 부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가

족관계가 나쁘게 변화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 느끼는 심리적 부담 역시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를 비교한 Ory 등(1999)은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일반노인 부양자들 보다 정서적·신체적 제약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으며 부양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제약과 관련된 부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신체적 제약,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된 부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말한다. 이는 부양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치매노인을 보살피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고, 또한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가졌다면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부양자는 모든 부양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함으로써 신체적 제약과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된 부양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경자(1994)는 부양자가 자신이 치매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자신이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가장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Stephens, Franks & Townsend(1994)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여 역할과중을 느끼는 주부들도 치매노인 부양에 대한 보상의 느낌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 상황에서도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Glasser & Wexler(1985), Haley, Levine, Brown, Berry & Hughes(1987), Green & Monahan(1989)은 치매노인 부양자가 부양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양스트레스가 훨씬 낮다고 말하면서, 이는 부양자가 피부양자 및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부양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순미(1999) 역시 치매노인 부양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은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지지 모임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들 견해와는 달리 Schulz & Williamson(1993)은 부양스트레스에는 부양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양보다는 부양자 자신이 사회적 지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해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 가정자원과 부양스트레스

1) 객관적 가정자원과 부양스트레스

부양주부의 연령과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와 관련해서 George & Gwyther(1986)는 성인자녀보다 노인배우자가 부양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하고, Fitting 등(1986)과 유광수(2001)도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20대 주부와 40대 주부의 부양스트레스를 비교한 정수진(1998)은 20대 주부가 40대 주부들보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40대 주부들은 20대 주부들에 비해 효의식이 강해 전통적인 효의식으로 부양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어 이 효의식이 부양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완충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 Necederhe & Fruge(1984), 이은희(1997)는 보살피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세대의 부양자들이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정현숙(1998), 마정수(1995), Pratt(1987)는 부양자의 연령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정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주부의 교육수준과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은희(1997), Meshfedjian, McCusker, Bellavance & Baumgarten(1998)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양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Ory 등(1999)은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들일수록 정서적 제약과 관련된 부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며, Kosloski, Young & Montgomery(1999)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월소득은 부양스트레스의 중요한 정후인 우울과 부적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교육과 월소득이 성공의 기회와 잇점을 더 많이 제공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자원과 문제해결력

역시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가정의 월소득과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최해경(1991), Montgomery, Gonyea & Hooymann(1985), Starrels 등(1997)은 가정의 재정상태는 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결정 요소이며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말한다. 반면 이은희(1997), 주현희(1999)는 이 두 변인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며 이는 노부모를 가정에서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의 관념, 노인이 치매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부양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치매환자들을 위한 전문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치매노인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가족들은 치매노인의 치료 및 부양을 위해 특별한 별도의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 반면에 조명희 외 3인(2000)은 부양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은 부양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치매노인 부양비용이 한계가 없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부양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취업주부들은 전업주부들보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Scharlach et al., 1991) 이는 직업역할이 주부들의 노인 부양의 책임을 줄여주기보다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압박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이영숙 외 2인, 1999). 이와 유사하게 Gottlieb, Kelloway & Fraboni(1994)는 부모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취업주부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위험, 그리고 일의 생산성이 감소할 위험에 처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그러한 2가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주부들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말하며, 취업한 성인자녀가 부양역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Starrels 등(1997)도 노인부양으로 인해 일을 쉬는 날이 많을수록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가 높다고 말한다. 반면 이은희(1998)는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하며, 이는 주부양자가 직장생활이라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활동을 가짐으로써 교대간호자와 간호대행자의 도움을 받기가 쉽

고, 또 직장 근무시간 동안은 노인부양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하루 간호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양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Meshefedjian 등(1998)은 부양자의 연령, 교육, 취업상태는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고, 김윤정(1994), 이정자(1995) 역시 부양자의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월평균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 가정자원은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객관적 가정자원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최근 가정자원의 유용성이 부각되어 가정자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정자원의 적정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정도, 즉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김경숙, 이정우, 1995; 장윤옥, 1997; 현은민, 1994; Rommel, 1989)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Rommel(1989)은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은 객관적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개인이 자신의 가정자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적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문제 해결 상태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최연실(1996)도 문제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나 가정자원의 활용 및 탐색에는 실제 상황보다는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가족들의 상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가정자원을 적정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완충적인 역할을 하여 주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또한 VanderMeer(1997)는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은 그들의 요구와 가정자원을 비치매노인 부양가족의 가정자원과는 매우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노인에게 사용하는 실제적인 시간과 돈에 관해서도 매우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Starrels 등(1997)은 비록

부양과업의 수행에 의해 부양스트레스가 발생하지만 부양과업의 수준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며 부양스트레스에는 과업의 어려움에 대한 부양자의 주관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은희(1998)는 부양자들이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할수록, 노인의 치료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높으며, 주부양자가 노인의 간호에 대해 주위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한 도움에 대해 만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말한다. Anderson, Williams & Cooper(1999) 역시 부양역할에 대한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신체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부양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말한다. 또한 Ory 등(1999)은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일반노인 부양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개인적 활동에 쓸 시간이 부족하고, 다른 가족구성원들보다도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책임을 공평하게 공유하지 않아 가족갈등도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자신의 가정자원이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거나 이로 인해 자신의 가정자원이 부족해졌다고 지각하는 것은 부양자들의 부양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3) 사회적지지자원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사회적지지자원은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사회, 사회기관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공받는 도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지지 자원은 치매노인 부양자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뿐 아니라 부양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부양과업의 보조 등 도구적지지, 그리고 부양과업의 어려움에 대한 동의와 위로 등의 정서적지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적지지 자원은 스트레스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막아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원과 관련하여 이윤로(1995)는 치매노인 부양주부에게 도움을 주는 가족이나 친척이 많고, 이들의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부양스트레스가 적다고 말한다. 또한 Anderson 등(1999)은 부양주부들이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받을수록 부양스트레스가 크다고 하고 Arnold, Fristad & Gavazzi(1999)은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치매노인 부양주부들이 다른 주부들에 비해 면역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지지가 치매노인의 부양스트레스 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은희(1998)는 친·인척들로부터 심리적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주부들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주부들에 비해 부양스트레스가 낮다고 하고, Kosloski 등(1999)은 부양자들이 받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접촉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포용, 치매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용한 공식적지지, 다른 가족구성원이나 친인척들로부터 받은 비공식적지지, 그리고 지지에 대한 만족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지지에 대한 만족이 부양스트레스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가족이 이용한 공격서비스가 많을수록 부양자의 우울이 증가하는데 이는 외부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부양자가 부가적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우울 수준도 높은 것이라고 말하고, 정서적 지지에 대해 만족할수록 우울은 감소한다고 한다. 또한 도구적 지지에 대한 만족보다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Zarit 등(1985)은 주부양자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는 등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면 부양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Youn과 Kim(1995)은 한국의 부양자 중에서 며느리들은 오히려 다른 며느리나 시누이, 남편 등과 같은 가까운 친척들의 방문이나 간섭에 의해 부양스트레스가 커지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한다.

4) 통제소재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개인의 성격특성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의 하나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자원이다(Casta & McCare, 1983; Hooyman & Kiyak, 1988). 이러한 성격특성 중에서도 통제소제는 개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이며(김현수, 1991)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설인자, 1989).

통제소제는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자기 자신 혹은 힘있는 타인이나 운명, 그리고 운이나 우연과 같은 외부환경 중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성격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중재하는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통제소제는 그 성향에 따라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통제성과 원인을 타인이나 운, 우연, 운명과 같은 외부환경에 두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외적통제성으로 분류되고 있다(장윤옥·정서린, 1997).

Hooker, Monahan, Shifren & Huchinsen(1992)은 부양자의 성격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Paulhus(1983)는 자신의 주변상황을 통제하는 능력과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의 정도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가 다르다고 한다. 특히 Anderson 등(1999)은 부양에 대한 숙달감은 부양할 수 있는 부양자의 능력, 역할에 대한 완수, 어느 정도는 상황에 대한 부양자의 통제감을 반영한다고 말하여 부양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부양자가 숙달감이 더 높다고 한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Kosloski 등(1999)은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자신이 거의 통제력을 갖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원에 반응하기 때문에 더 큰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말하고, Mcnaughton(1991) 역시 외적 통제성이 증가하고 비합리적 신념을 수용하는 부양 주부들일수록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한 우울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Mirowsky & Ross(1990)는 스트레스를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자신과 사

회에 대한 모든 신념 중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Miller, Campbell, Farran, Kaufman, & Davis(1995)는 통제감이 우울성향에 대한 대처능력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한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부양스트레스를 조사한 송현애와 이정덕(1995)도 외적통제성이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 정현숙(1998) 역시 개인적 효능감과 대인관계 통제력은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제소제와 같은 성격 특성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양으로 인해 생기는 부양스트레스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5) 가족체계자원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가족체계자원 중 응집력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로서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응집의 정도,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일치, 활동과 과제에의 분담, 가족구성원의 자율성을 포함한다(Stephen, 1988). Greenberg 등(1993)은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어머니와 정신지체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응집성과 그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가족체계의 응집성이 낮다고 지각하는 주부들일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동 불편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배옥현과 홍상옥(1998)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자원에 따른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를 알아본 논문은 극히 적은데 이중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주현희(1999)는 가족응집성과 부양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며, 이는 응집성이 높은 가족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활동을 가치를 두고, 가족의 단란함과 단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치매노인을 보살피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배우자나 자녀

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부양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가족간의 갈등이 응집성이 낮은 가족에 비해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 치매라고 여겨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며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1998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질문지의 내용과 형식을 수정·보완하고 치매노인 부양주부들에게 성실한 응답을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대구시에 위치한 치매전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치매노인의 부양자, 대구지역에 위치한 각급 학교 학생들을 통해 확인된 치매노인 부양자, 각 구별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의 부양자 그리고 연구자들을 통하여 알아낸 치매노인 부양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소재를 먼저 조사·파악하였다. 그 다음 연구자가 치매노인 부양주부들과 직접 접촉하여 연구취지와 목적, 그리고 질문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 상황을 파악한 후 부양주부에게 질문지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승낙을 받았다. 그 후 각 가정을 방문하여 부양주부에게 질문지를 직접 전달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동봉한 질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어 응답하게 하는 우편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7월에서 10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21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62부를 회수하였으나 이중 부실기재 되었거나 미혼자녀가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141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이용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중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부양주부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측정도구

1) 객관적 가정자원

객관적 가정자원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정의 평균 월소득 변인으로 구성된 개방기입식과 선택기입식의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2)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은 주부가 가정내·외의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자원에 대해 적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Rommel(1989)의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정

<표 1>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변수	내용	인원 (%)
노인연령	60 - 70세	14(9.9%)
	71 - 80세	62(44.0%)
	81 - 90세	51(36.2%)
	91세 이상	14(9.9%)
유병기간	1년 미만	24(17.0%)
	1년 - 2년	26(18.5%)
	2년 - 3년	24(17.0%)
	3년 - 4년	22(15.6%)
	4년 - 5년	16(11.3%)
	5년 - 6년	12(8.5%)
노인학력	무 학	59(41.8%)
	초등학교졸	49(34.8%)
	중학교졸 이상	33(23.4%)
노인성별	남	38(27.0%)
	여	103(73.0%)
결혼상태	동거	31(22.0%)
	사별	106(75.2%)
질병유무	유	89(63.1%)
	무	52(36.9%)

〈표 2〉 부양주부의 일반적 특성 (N=141)

변수	내용	인원 (%)
주부연령	40세 이하	28(19.9%)
	41 - 50세	67(47.5%)
	51세 이상	46(32.6%)
월 소득	100만원 이하	22(15.6%)
	101 - 200만원	52(36.9%)
	201 - 300만원	38(26.9%)
	301만원 이상	29(20.6%)
노인관련 1일 가사노동시간	5시간 이하	66(46.8%)
	6 - 10 시간	33(24.1%)
	11시간 이상	42(29.1%)
주부학력	중학교졸 이하	36(25.5%)
	고등학교 졸	47(33.3%)
	대학교졸 이상	58(41.2%)
노인과의 관계	며느리	100(70.9%)
	딸	33(23.4%)
	친·인척	5(3.6%)
	기타	3(2.1%)
취업여부	유	45(31.9%)
	무	96(68.1%)

서린(1996)의 척도를 기초로 총 26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1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25문항을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내용을 검토한 후 인적자원적정도(12문항), 물적자원적정도(9문항), 지역자원적정도(4문항)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46.5%를 설명하며 척도의 Cronbach 계수는 각 요인별로 .80, .88, .85이다.

3) 통제소재 척도

통제소재는 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Hiatt & Reinger (1986)의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총 17문항으로 척

도를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되었거나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3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14문항을 통제소재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의 내적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즉, 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전체 변량의 4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 계수는 .69이다.

4) 사회적지지 자원

사회적지지 자원은 치매노인 부양주부가 그들의 형제·자매로부터 받고 있는 치매노인 부양에 필요한 경제적, 심리적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개방식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5) 가족체계자원 척도

가족체계자원은 가족이 체계로서 갖게되는 내부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귀연(199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의 가족체계자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되었거나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3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17문항을 가족체계자원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요인별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와 서로간의 결함력을 의미하는 가족응집성(9문항)과 상황적 또는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의미하는 가족적응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계수는 요인별로 각각 .81, .79이다.

6) 부양스트레스 척도

부양스트레스 척도는 Zarit 등(1980)이 개발한 치매노인 부담 면접 척도를 사용한 주현희(1999)의 척도를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되었거나 요인 부하량이 .40이하인 3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28문항을 부양스트레스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계수는 .93이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Cronbach 계수를 산출하고, 요인분석, 적률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와 가정자원의 상관관계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와 객관적 가정자원(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취업여부),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인적, 물적, 지역사회자원), 사회적 지지자원(경제적지지, 심리적지지), 통제소재

(내적, 외적), 그리고 가족체계자원(응집성, 적응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는 객관적 가정자원 중에서는 주부학력과 월소득이 부양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중에서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적정도지각이 부양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사회적지지 자원 중에서는 심리적지지 자원과 부양스트레스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그리고 통제소재와 부양스트레스간에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학력과 월소득은 높을수록, 인적자원적정도지각과 물적자원적정도지각은 낮을수록, 친인척들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외적통제성을 가질수록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가정자원의 상대적 영향력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객관적 가정자원, 가정자원적정도지각, 통제소재, 사회적지지자원(경제적, 심리적지지) 그리고 가족체계자원(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가정자원은 부양스트레스 총 변량의 3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스트레스에는 가족응집성($\beta = .275$), 친·인척들의 심리적지지($\beta = -.243$), 가족의 월소득($\beta = .238$), 인적자원적정도지

<표 3>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와 가정자원간의 상관관계

가정자원	객관적 가정자원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사회적지지 자원		심리적 자원	가족체계자원	
	주부 연령	주부 학력	월소득	취업 유무	인적자원 적정도	물적자원 적정도	지역자원 적정도	경제적 지지	심리적 지지	통제 소재	응집성	적응성
부양 스트레스	.030	.229**	.285**	-.066	-.246**	-.222**	-.150	-.035	-.203*	-.259**	-.036	-.042

* p <.05, ** p<.01, ****, p<.001

〈표 4〉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가정 자원의 상대적 영향력

부양자원		부양스트레스	B	β
객관적 자원	주부연령		-5.453E-03	-.086
	주부학력		.131	.132
	월 소득		.421	.238**
	취업유무		-2.545E-02	-.022
가정자원 적정도 지각	인적자원		-.237	-.233*
	물적자원		5.706E-02	.068
	지역자원		-5.699E-02	-.075
사회적 지지자원	경제적지지		4.323E-02	.041
	심리적지지		-.265	-.243**
심리적 자원	통제소재		-.286	-.222*
가족체계 자원	응집성		.215	.275*
	적응성		-.117	-.129
Constant			4.554	
F 값			3.063***	
R ²			.301	

* p <.05, ** p<.01, *** p<.001

각($\beta = -.233$), 통제소재($\beta = -.222$)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친·인척들의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인적자원적정도지각이 낮을수록, 그리고 외적통제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가족응집성이 가장 큰 상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응집성과 부양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주현희(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가족응집성이 낮다고 지각하는 주부일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Greenberg 등(1993)의 연구결과, 가족응집성이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배옥현과 홍상욱(1998)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데 이는 이들이 질환을 가진 성인자녀를 보살피는 어머니나 거동불편노인을 부양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족응집성이 높은 가족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나 활동, 단결을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갖는 가족이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해 가족단란을 위한 시간을 침해당하고, 뿐만 아니라 부양 초기에는 치매노인 부양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가족응집성이라는 자원으로 충분히 부양의 힘을 얻을 수 있으나 치매의 특성상 이는 장기부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장기부양으로 인해 누적되는 어려움은 가족간 갈등을 야기하게 되며 이 때 발생하는 가족간 갈등에 대해 가족응집성이 높은 가족은 다른 가족들에 비해 더욱 큰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가족응집성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친·인척들의 심리적 지지인데 친·인척들로부터 심리적으로 지지 받고 있는 주부일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인척들로부터 심리적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주부들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주부들에 비해 부양스트레스가 낮다고 한 이은희(1998)의 연구결과,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정서적 보상이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양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한 박순미(1999)의 연구결과, 정서적 지지에 대해 만족할수록 부양자의 우울이 감소하며, 정서적 지지에 대한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Kosloski 등(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며느리나 시누이, 남편 등과 같은 가까운 친척들의 방문이나 간섭에 의해 부양스트레스가 커지기도 한다는 Youn과 Kim(1995)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친·인척들의 방문으로 주부양자인 주부의 가사노동이 증가하여 부양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한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이해나 지지는 이러한 가중된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 있는 변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가족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월소득과 부양스트레스는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이은희(1998), 소득이 낮을수록 부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는 Ory 등(1999)의 연구결과와

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의 치매노인 부양가족이 노인이 치매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리고,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기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가정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반면 월소득이 높은 가정은 부양의 어려움을 경제적 자원으로 감소시키고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심리적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용한다 하더라도 치매노인 부양비용이 한계가 없이 많이 소요되기(조명희 외 3인, 2000) 때문에 처음부터 부양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 없었던 월소득이 낮은 가정보다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월소득이 많은 가정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아 노인이 치매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더욱 꺼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인적자원적정도지각이 낮을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인적자원이 자신의 건강, 시간, 그리고 자신을 신체적·경제적·정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주위 이웃, 친인척, 친구들을 포함하는 자원이므로 부양주부가 친·인척들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 부양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외적통제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외적통제성이 큰 주부일수록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한 우울이 증가한다는 Mcnaughton(1991)의 연구결과, 외적통제성이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한 송현애와 이정덕(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외적통제성이 높은 주부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타인이나 어쩔 수 없는 외부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개선되거나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는 주부학력, 월소득과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인적자원적정도지각과 물적자원적정도지각, 친·인척들로부터 심리적 지지 자원, 그리고 주부의 내적통제성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는 가족응집성, 친·인척들의 심리적지지, 가족의 월소득, 인적자원적정도지각, 통제소재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친·인척들의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인적자원적정도지각이 낮을수록, 그리고 외적통제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부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각 가정자원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영역의 가정자원이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가정자원이 거의 유사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매노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때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가정자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이들 가정자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통해 몇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가정자원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영역의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여 다영역적인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는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를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서로 다른 차원의 가정자원이 서로 다른 영역의 치매노인 부양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바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증상 정도나 증상의 유형 변인을 통제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치매노인의 증상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대처방법과 경험하게 되는 부양스트레스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들 변인들을 고려한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중돈(1994).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김경숙, 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
- 김윤정(1994). 치매노인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 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전길량(1996).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77-95.
- 김희경(1995). 치매노인 부양자와 정상노인 부양자의 심리적 부담 비교.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마정수(1995).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순미(1999). 치매노인가족의 부양실태와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욕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배옥현, 홍상욱(1998). 저동불편노인가족의 가족자원과 부담감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1), 91-103.
- 서리나(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도지각과 대상별 가정관리수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설인자(1989).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에 따른 성공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 김경연(1996). 아동, 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있어서 관여, 내적통제감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4(6), 195-206.
- 유광수(2001). 노인성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125-147.
- 이경자(1995). 치매노인의 간호문제와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2), 30-51.
- 이영석, 최외선(1993).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2), 97-109.
-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 학지사.
- 이윤로(1995). 치매노인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2, 108-124.
- 이은희(1997).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담 감소를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전략.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이정우, 황경혜, 정진희(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4), 1-15.
- 임정빈, 지영숙, 문숙재, 이기영, 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서울 : 학지사.
- 장덕민(1996).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 정상노인 부양자와의 비교.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장윤옥(1997). 가정자원, 통제소재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87-300.
- 장윤옥, 정서린(1997).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141-153.
- 전세경(1989).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1998).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위기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8). 치매노인 부양자의 치매관리전략과

- 정서적 적응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조명희, 권오정, 최정신, 김대년(2000).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9, 33-65.
- 주현희(1999). 치매노인의 기능장애 및 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와의 관계.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최연실(1996). 청소년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해경(1991). 심신 기능 손상 노인을 돌보는 가족 수발자 부담의 한국에서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18, 175-205.
- 통계청(2001). 인구 및 주택조사보고서, 3-15.
- Arnold, J.S., Fristad, M.A. & Gavazzi, S.M. (1999). Family psychoeducation : Giving caregivers what they want and need. *Family Relations*, 48(4), 411-417.
- Anderson, P.D., Williams, S.W. & Cooper, T. (1999). The contexts of experiencing emotional distress among family caregivers to elderly African Americans. *Family Relations*, 48(4), 391-396.
- Casta, P.T. & McCare, R.R. (1983). Contribution of personality research to an understanding of stress and aging. In McCubbin, M. B., Sussman & Patterson, J. M.(eds.). *Social Stress and Family*. New York : The Haworth Press, 157-174.
- Clipp, E.C. & George, L.K. (1993). Dementia and cancer : A comparison of spouse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3(4), 534-541.
- George, L.K. & Gwyther, L.P. (1986).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 Complex determinants of well-being and burden. *The Gerontologist*, 26(3), 245-247.
- Glasser, G.G. & Wexler, D. (1985). Participants' evaluation of educational/support groups for families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 *The Gerontologist*, 25(2), 223-236.
- Gottlieb, B.H., Kelloway, E.K. & Fraboni, M. (1994). Aspects of eldercare that place employees at risk. *The Gerontologist*, 34(6), 815-821.
- Green, V.L. & Monahan, D.J. (1989). The effect of a support and education program on stress and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to frail elderly persons. *The Gerontologist*, 29(4), 472-477.
- Haley, W.E., Levine, E.G., Brown, S.L., Berry, J.W. & Hughes, G.H. (1987). Psychological, social, and health consequences of caring for a relative with senile dementia.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5(4), 405-411.
- Hooker, K., Monahan, D., Shifren, K. & Huchinsen, C. (1992).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spouse caregivers : The role of personality. *Psychology and Aging* 7(3), 367-375.
- Hooyman, N.R. & Kiyak, H. (1988). *Social Gerontology -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 Allyn & Bascon.
- Janzen, W.M. (2000). Family members caring for relatives with Alzheimer diseas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 Kosloski, K., Young, R.F. & Montgomery, R.J.V. (1999). A new direction for intervention with depressed caregivers to Alzheimer's patients. *Family Relations*, 48(4), 373-379.
- Light, E., Niederehe, G. & Lebowitz, B.D. (1994). *Stress effects on family caregivers of Alzheimer's patients :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 Springer.
- Mattews, K.A. (1982).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type a behavior pattern. *Psychological Bulletin*, 91(3), 292-323.
- Mcnaughton, M.E. (1991). Stress, locus of control, irrational beliefs, social support, health and immune function in Alzheimer caregiv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 of California.
- Meshefedjian, G., McCusker, J., Bellavance, F. & Baumgarten, M. (1998). Factors associated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informal caregivers of demented elders in the community. *The Gerontologist*, 38(2), 247-253.
- Miller, B., Campbell, R., Farran, C., Kaufman, I. & Davis, L. (1995). Race, control, mastery, and caregiving distress.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50B, S374-S382.
- Mirowsky, J. & Ross, C. (1990). Control or defense? Depression and the sense of control over good and bad outcom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1), 71-86.
- Montgomery, R.J.V., Gonyea, J.G. & Hooyman, N.R. (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34(1), 19-26.
- Novak, M. & Guest, C.I. (1989). Caregiver Response to Alzheimer's diseas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8(1), 67-79.
- Ory, M.G., Hoffman, R.R., Yee, J.L., Tennstedt, S. & Schulz, T. (1999). Prevalence and impact of caregiving : A detailed comparison between dementia and nondementia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9(2), 177-185.
- Pratt, C.V. (1987). Ethical concerns of family caregivers to dementia patients. *The Gerontologist*, 27(5), 632-638.
- Pruchno, R.A. & Resch, N.L. (1989). Husbands and Wives as Caregivers : Antecedents of depression and burden. *The Gerontologist*, 29(2), 159-165.
- Rommel, J.I. (1989). Wives' and husband' resources adequacy perception, conflict resolution and contextual variables : A longitudin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Rowland, V.T., Dodder, R.A. & Nickols, S.Y. (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218-225.
- Schulz, R. & Quittner, A.L. (1998). Caregiving through the lifespan : An overview and future directions. *Health Psychology*, 17(2), 107-111
- Schulz, R. & Williamson, G. (1993). Coping with specific stressors in Alzheimer's disease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33(6), 747-755.
- Starrels, M.E., Ingersoll-Dayton, B., Dowler, D.W. & Neal, M.B. (1997). The stress of caring for a parent : Effects of the elder's impairment on an employed, adul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4), 860-872.
- VanderMeer, J.L. (1997). Personal and financial costs to family systems providing informal home care for rural elders with Alzheimer's disease. Unpublished mastery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 Zarit, S.H., Reever, K.E. & Bach-Peterson, J.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

(2003년 10월 22일 접수, 2004년 4월 17일 채택)